

청정지역 장수 방역체제 화제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용역 착수

코로나19 확진자 1명 실거주지 대전으로 사실상 감염자 전무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북 장수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실상 전무해 '장수형 방역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장수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확진자(완치)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으로 지역 감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12~13일 전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장수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장수형 방역체제'가 전국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통계상 장수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1명, 지난해 3월 대구로 의료보수를 갔다가 고향집에서 혼자 자가 격리를 하던 중 해제 하루를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국에서 슬기로운 자가 격리의 모범 사례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 김성덕 간호사이다.

김 간호사는 주소지가 장수로 돼 있

으나 실거주지는 대전이어서 장수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전무하다. 김 간호사 확진 판정 후 1년이 넘게 장수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국 최고의 코로나19 청정지역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장수군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수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장수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지역에 맞는 촘촘한 방역 체제를 구축해 코로나19 원천 차단에 나섰던 것이다.

장수형 방역체제는 장영수 군수가 직접 제시한 것으로 ▲타 지역 경조사·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타 지역 방문 자제 관내 관광지·역사유적 탐방 ▲타 시도 방문 후 능동적 자가 격리 ▲타 지역 방문자 참가 행사·교육 참여 자제 ▲정례식장·결혼식장 음식제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장수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행정과 주민들이 헌신일체가 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효과를 거

뒀고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자 0명을 기록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전국적으로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했지만 장수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통한 집단감염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주목거리. 장수군이 주기적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집단감염을 막았다.

장영수 군수는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살기 좋은 해발고도 500m이상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의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 코로나19 예방 활동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농·특산물 유통환경 조성 강화

유통대책 매뉴얼 재정비·대책 마련

장수군은 주요 농·특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농·특산물 유통대책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과·한우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통환경 조성 강화에 나섰다.

14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농·특산물 유통대책 매뉴얼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가격 하락 사전 대응·관리 행정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가격하락 예상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 ▲피해 우려품목에 대한 반복점검 및 지속 보완 ▲가격 하락에 대한 행동요령 및 실시간 가격 등락 정보 실시간 파악 ▲민간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약체결 및 적극 협업

▲통합마케팅 조직과 협조를 통한 즉시 대응 ▲유통판매 대응계획 작성 등 위기 상황 대응 철저를 원칙으로 수립했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한 유통 관리 대책 본부 및 8개 주요 업무도를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수립했다.

비상대응 방침은 준비단계와 보강단계(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1단계), 비상단계(2단계), 정리단계 등 총 5단계로, 준비단계에서는 농축산유통과의 총괄로 주요 농산물 동향 및 도매시장 유통 상황을 파악해 주 출하기 판매 방해 요소 및 가격동향을 예측한다.

보강단계에서는 통합마케팅 조직과 정보 체계화 및 사전 대비로 가격안정 지원 자금 지원 여·부를 파악한다.

비상1단계에서는 농축산유통과의 총괄로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가 지원에 나서 자체 소비 촉진 및 지원, 주기별 상황보고 및 기타 대응을 추진해 APC등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유통 관리 마련, 상황 수습지원 단 파견 및 운영을 실시한다.

비상2단계에서는 농축산유통과의 축산과, 과수와 총괄로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지원으로 전국 유관기관 및 지자체 팔아주기 운동 추진, 온라인 소싱몰, 소비촉진 운동 등 판매 다각화, 행정적 지원 가능 여부 및 대책 등 전국적으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정리단계에서는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과수과를 총괄로 현장수습, 상황정리, 위기 대응 문제점 및 보완점 객관적 평가, 후속 대책 및 보완 대책 마련 등 결과 보고를 통한 위기 대응을 수습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치목지구 지적제조사 현황 측량 착수

무주군은 지난 12일부터 치목지구 지적제조사 사업을 위한 현황 측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추진

중이다. 군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부와(주)우코리아 2개 업체를 공동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3월 전 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승인 받았다.

사업 위치는 적상면 괴무리 치목마을 일원으로 628필지에 대상면적은 40만9,007㎡이다. 오는 5월말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무주군이 용담댐 피해 손해사정조사(용역 국비 1억9,000여만 원 투입)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으로 부남면에서 무주를 까지 용담댐 하류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277가구 3,087건에 대한 손해사정조사를 비롯해 ▲피해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근거를 통해 피해손해사정, ▲피해손해액 확정 및 피해액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과업 내용에 포함된다.

14일 무주를 서면마을에서 피해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손해사정조사 착수보고회에서 황인홍 군수는 "피해과수, 주택, 물건 하나도 누락되는 일 없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사정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



14일 무주를 서면마을에서 손해사정조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번 조사결과가 피해보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무주군은 전 공무원이 피해지역으로 일제 출장해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손해사정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3월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지난 13일 작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사 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이날 용담면사무소에서는 용역회사인 가족 손해사정법인(주)과 진안군 용담댐 피해주민대표 위원장(김철영)을 비롯해 피해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로 조사용역 시작을 알렸다.

용역회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조사용역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기간에 피해목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조사용역에서는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방류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용역은 현장조사 등을 마쳤으며 추후 평가 과정을 통해 5월말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56가구 외에 추가로 67가구에 대한 피해가 더해져 62가구의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축산단체 협의회와 정관개정 해결방안 모색

진안군은 14일 '진안군 축산단체 협의회' 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무진장축협 정관개정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진안축산협동조합은 1979년도에 창립되어 2001년도에 무주축산협동조합과 흡수합병 됐고, 2008년 장수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무진장축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량 지역농협인 진안축협과 당시 부실 지역농협인 장수축

협이 합병할 당시, 합병계약서상에 지역별로 대의원 수를 별도로 정하는 조건을 넣었다. 현재까지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진장축협조합 내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의원 수 배정 방식이 위법한 정관개정으로 훼손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온라인 한마음 치매 극복건강걷기 행사 개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오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2021년 온라인 한마음 치매극복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운동' 실천을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 앱을 통해 진행되며 걷기 편한 곳이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다.

헬리지는 행사 기간 동안 5만 보를 달성하면 되고, 무리한 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걸을 수는 하루 최대 7,000보로 제한된다.

군은 목표 걸음수를 달성한 선착순 350명에게 행사가 끝난 뒤 달성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자 중 걷기 인증사진과 희망 메시지 작성자 50명에게 추가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걸음수가 가장 많은 1~3등에게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같이의 가치' 진안 주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최선

진안군 주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명수, 이하 협의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 추진이 본격 추진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실시했으며 2명의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천면, 주천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3개 기관의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 밀착작업을 완성했다.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표는 '주천은 한가족!'이며 이를 위한 추진방침으로 이웃을 살피go, 알려주go, 함께하go,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주천이라고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하며 활기찬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관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과, 90대 어르신 생신 축하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